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분석

1. 출제 경향

① 총평

2014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먼저 난이도의 경우는 작년 대수능보다 쉬웠고, 작년 9월 모의평가 비교할 때도 쉬웠으며,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고 볼 수 있다. 올해 6월에는 작년과는 달리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어 진도를 마치지 못한 고3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9월에는 진도를 거의 마쳐 체감 난이도가 다소 낮아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6월 모의평가의 출제 단원을 분석해보면 1단원에서 5문제, 2단원에서 4문제, 3단원에서 3문제, 4단원에서 4문제, 5단원에서 3문제, 6단원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다. 전체 단원에서 비교적 고르게 출제되었지만 6단원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졌다. 중요한 내용이 많은 1, 2, 4단원의 출제 비중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높았다.

합답형 문제는 8문제로 이전과 비슷하였고, 합답형 중에서 답지 구성이 2~3개에 해당하는 문제는 3개로 6월 모의평가보다는 1개가 많았다.

한편, 9월 모의평가에서는 기존에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충실히 풀이한 학생에게는 매우 유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EBS 수능 교재의 연계가 두드러져서 EBS 수능 교재를 착실하게 풀이한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제경향 특징 3가지

하나. 이전보다 쉽게 출제되었다.

둘.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가 매우 충실했다.

셋. 출제 빈도가 높았던 요소의 문제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졌다.

2. 난이도

(2012년 9월 모의평가/ 2013학년도 수능/2013년 6월 모의평가와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2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	2013학년도 수능과 비교	2013년 6월 모의평가와 비교
사회문화	쉬움	쉬움	쉬움

사회문화의 경우 2012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할 때 쉽게 출제되었고, 2013학년도 대수능의 난이도와 비교해 보면 훨씬 쉽게 출제되었으며, 2013년도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볼 때

도 쉽게 출제되었다.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성이 두드러졌고 학생들이 평소 가장 어려워하던 표 계산 문제도 1문항만 출제된 것도 쉽게 느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계층 이동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문제는 여전히 까다롭게 출제되어 이 문항이 최상위 집단을 변별하는 문항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출제 요소는 예년과 비슷하게 빠짐없이 출제된 편이었으며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가 두드러져 평소 기출 문제와 EBS 교재를 충실히 풀이한 학생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① 파트별 세부 난이도

1단원에서는 1, 2, 4, 6, 17번 문항이, 2단원에서는 5, 8, 15, 16번 문항이, 3단원에서는 7, 9, 14번 문항이, 4단원에서는 11, 13, 18, 20번 문항이, 5단원에서는 3, 10, 19번 문항이, 6단원에서는 12번 문항이 출제되었다. 1단원의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자연 현상과 사회 문화 현상의 특징 비교,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방법의 비교, 가설에 적합한 자료 수집 등 5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전에 출제되었던 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출제되어 학생들은 다소 쉽게 느꼈을 것이다. 2단원의 개인과 사회 구조에서는 6월에 7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4문항만 출제되어 출제 빈도가 다소 낮아졌고,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 출제되어 학생들이 특별히 어렵게 느낄 문항은 없었다. 3단원 문화와 사회에서는 문화의 속성, 하위문화, 문화 상대주의의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문제는 EBS교재와 연계되었고 내용 자체도 평이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단원 사회 계층과 불평등에서는 20번이 어려웠는데, 20번 문항의 경우는 그 동안 사회문화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세대 간 이동 문제이고 EBS교재와 연계된 문항이 아니어서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로 작용했을 것이다. 5, 6단원 문제는 대체로 평이하였다.

② 고난도 문제

• 17번 - 이전에 출제된 유형의 문제이지만, 학생들이 여전히 어렵게 느낄 문항이다. 연구 거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 활동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합답형 문항으로 출제되어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20번 - 세대 간 이동을 표로 구성하여 묻는 문제는 항상 사회문화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당한다. 세대 간 이동결과를 일지, 상승, 하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문제는 집하기 어려운 문제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수능 비연계 문항이라는 점도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③ 신유형 문제

• 9번 - 그 동안 사회문화 출제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던 하위 문화에 대해 전체 문화와의 관계를 단순화된 도식을 통해 파악하도록 한 문항이다. 이러한 유형은 문화 접면 유형에서는 시도되었지만, 하위문화를 내용으로 하여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듯하다. 그래서 학생들도 일단 전체문화, 하위문화라는 주제를 파악하기가 만만치 않고, 답지도 까다로워 다소 어렵게 느꼈을 문항이다.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① 연계표

문항 번호	교재명	EBS 교재 연계 내용	
		쪽수	문항번호 (내용요소)
1	수능 특강 사회문화	8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2	수능 완성 사회문화	140	9번
3	수능 완성 사회문화	114	9번
4	수능 완성 사회문화	28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6	수능 완성 사회문화	20	5번
7	수능 완성 사회문화	54	문화의 속성
8	수능 특강 사회문화	49	3번
9	수능 완성 사회문화	62	1번
11	수능 특강 사회문화	133~134 13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3번
12	수능 특강 사회문화	174	근대화론과 종속이론
13	수능 완성 사회문화	90	8번
15	수능 완성 사회문화	48	비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
17	수능 완성 사회문화	129	8번
18	수능 특강 사회문화	107	마크스와 베버의 계층 이론 비교

② 체감 연계도

사회문화에서 출제된 20문항 중 EBS 수능 교재에서 14문항을 연계하여 출제하였으며 연계율은 70%이다. 연계 유형도 EBS 수능 특강 문항의 변형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표나 지문 비슷하게 출제되어 학생들은 연계를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사 과목 중 법과 정치나 경제에 비해 내용 요소 연계 문항이 7문항으로 많았다. 이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연계유형별 세부 분석

(1) 개념/원리 활용

- 대표 문항 : 1번, 4번, 7번, 11번

개념/원리 활용의 경우 1번, 4번, 7번, 11번 4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들 문항들은 모두 내용 요소들을 연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계도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자료/지문 활용

- 대표 문항 : 12번, 15번, 18번

자료/지문 활용은 12번, 15번, 18번 3개가 출제되었다. 12번 문항은 교재의 심화 탐구와 있는 자료를 지문으로 활용하였고, 15번 또한 심화학습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를 분류하고,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3) 문항의 변형

- 대표 문항 : 2번, 3번, 6번, 8번, 9번, 13번, 17번

문항의 변형은 6월 모의평가에서 EBS 교재와 가장 많이 연계된 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내용 요소가 아니라 문항에서 직접 자료가 연계되어 있어 학생들이 연계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 9번, 13번의 연계도가 가장 높았다.

4. 대표 연계 문항

9월 모의평가 문항 9번	EBS 수능 완성 62쪽 1번
<p>9. 다음 자료에 제시된 (가), (나)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특수 주택 (가)문화 (나)문화</p> <p>두 문화는 문화의 공간 수준과 밀도에 따라 (가)문화는 (나)문화보다 수평적이며, (나)문화는 (가)문화보다 수직적이며, (가)문화는 (나)문화보다 수평적이며, (나)문화는 (가)문화보다 수직적이다.</p> <p>▲ 문화 공간의 수준과 밀도</p> <p>○ 문화 공간의 수준과 밀도</p> </div> <p>①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나)문화는 다양해진다. ② (나)문화는 한 사회에서 문화 공간의 확장이 되기 쉽다. ③ 사회 변화에 따라 (나)문화는 (가)문화가 되기 쉽다. ④ 한 사회 내에 있는 모든 (나)문화의 총합이 (가)문화이다. ⑤ (나)문화는 (가)문화와 다른 독특한 가치의 규범을 갖기도 한다.</p>	<p>01. _____</p> <p>그림의 (가), (나) 문화는 한 사회의 문화들 공유 수준과 밀도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 (나) 문화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가) 문화</p> <p>(나) 문화</p> </div> <p>* (가), (나) 문화는 문화의 공유 수준과 밀도에 따라 구별한다.</p> <p>① 다른 일련의 차별성을 부여한다. ② 전체 문화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한다. ③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 ④ 해당 집단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 ⑤ 사회 전체 구성원의 문화 동질성을 높인다.</p>
<p>[문항 변형] EBS교재의 그림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전체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하위문화의 특징과 기능을 묻는 문항으로 그림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EBS 교재를 풀었던 학생이라면 쉽게 착안을 할 수 있어 크게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p>	

1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회]

사회적 소수자가 발생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 "주인과 그들은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서로 다르다고 인식되는 주요 대상은 성별, 피부색, 문화 등이다. 두 번째는 ㉡ "우리는 정상이고 그들은 비정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그들'을 사회적 가치의 배중에서 배제한다.

- ㉠ 1의 기준은 후천적인 요소가 아닌 선천적인 것이다.
- ㉡ 극단적 분화 상태주어는 ㉢에서 나타난다.
- ㉢ ㉠에서는 구성원 수의 크기가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 ㉣ ㉡보다 ㉢으로 인해 격차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 ㉤ ㉠의 대상과 ㉢에서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마다 상이하다.

0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소수자가 발생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 첫 번째 단계는 '우리와 그들은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성별, 피부색, 종교, 문화 등은 핵심 기준으로 판단된다. ㉡ 두 번째 단계는 '우리는 정상이고 그들은 비정상이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그들'을 사회적 가치의 배중에서 배제한다.

- ㉠ ㉠에서는 주어진 대안 구분이 나타난다.
- ㉡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위치는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에서 사회적으로 입구 기준은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로 판단된다.
- ㉣ ㉡와 ㉢, ㉤은 ㉠을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 조건이 필요하다.
- ㉤ ㉢은 상대적으로 객관 사실 판단의 불확실하고, ㉤은 ㉢을 상대적으로 객관 사실 판단의 불확실하다.

[자료/상황 활용] 사회적 소수자가 발생하는 과정을 EBS 교재의 문항 자료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였고, 답지 구성에서도 교재의 내용을 다소 다루어 학생들에게는 친숙한 문항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EBS를 풀어본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